

2021년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1. 12. 10(금) 11:30-12:30

■ 장 소 : 복지관 2층 강당

■ 참석자 : 최복수, 김경집, 김덕숙, 김호경, 권양숙, 송선애, 장정희, 전용한, 임효연, 이선옥(10명)

■ 위임자 : 없음.

■ 사회자 : 최복수 위원장

■ 배 석 : 배은정·정유정·최진열 과장, 김철영 팀장, 복지정책과 김금순팀장(5명)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김경집 부위원장이 10명의 운영위원 참석에 대해 성원보고하다.

2. 개회

제4차 운영위원회 성원 보고됨을 확인하고 최복수 위원장이 2021년 제4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서면 검토

위원장이 전 회의록의 가납여부를 묻자, 권양숙위원이 동의하고, 김덕숙위원이 재청하여 가납되다.

4. 2021년 대상자별 욕구 프로그램 진행현황 보고

이선옥 부장이 2021년 대상자별 욕구 프로그램을 보고하다.

5. 신입직원 소개

11월에 입사한 지역조직팀 유성민 사회복지사 소개하고 인사하다.

6. 2021년 중점사업 성과보고

2021년 중점사업 성과보고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1, 서비스제공2, 지역조직 순서로 보고하다.

7. 2022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안) 심의

이선옥 부장이 2022년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안)을 보고하다.

2022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김호경 위원의 동의와 임효연 위원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송선애 위원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 위탁 심의에 선정됨을 축하하다. 복지관 사업들이 짜임새 있게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다. 외국인 사례관리의 경우 구에서 중간 역할을 하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자원을 찾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복지관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다.

최복수 위원장 : 몽골 사례관리 대상자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묻다.

정유정 과장 : 패혈증으로 모 사망 후 대사관 협조로 자녀들과 부 모두 몽골로 무사히 출국하였으며 집 정리까지 완료된 상태로, 오늘 종결회의까지 진행되었음을 안내하다.

최복수 위원장 : 외국인들이 의료보험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속히 사례관리를 진행해 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다.

임효연 위원 : 사례관리 시 대상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코로나로 힘든 시기라 이런 비대면 환경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향후 위드 코로나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발견한 대안이 있는지를 묻다.

정유정 과장 : 코로나로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복지관 자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말하다. 월 6회 안부 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안부전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 나가자 하며 상담 과중, 다양한 문제 접근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들 및 안전에 대한 대안들이 더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다. 또한 사각지대 대상자가 많은데,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시스템들이 좀 더 유연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다.

송선애 위원 : 광진구 1인 가구 수가 48.1%가 되었고,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6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1인 가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 약화로 개입이 늦어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다.

김경집 위원 : 내년도는 복지관 공간보다는 지역으로 나가 밀착형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복지관 자원만으로는 공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공간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이 소개 및 정보를 전달해 주신다면 지역으로 적극 나가

밀착형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하다.

임효연 위원 : 사이살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진행 될 예정인지, 또한 1년 동안 4그룹을 각각 진행하면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자 특성이 다양했을 것 같은데 진행 과정상에 어려움은 없었는지를 묻다.

최진열 과장 : 광진복지재단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우수사업에 선정되었고, 내년도에도 진행 할 예정이며 4그룹을 진행하다 보니 모집 시 시간 소요가 많았고, 회기가 짧다고 느껴졌기에 내년도 계획은 대상층을 줄이고, 회기를 늘려 참여자 간 관계를 좀 더 밀도 있게 진행해나 가려 한다고 안내하다.

임효연 위원 : 광진구가 청년이 많긴 하지만 성별 및 지역 상황에 따라 1인 가구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향후 1인 가구 사업 진행 시 청년도 좋지만 복지관 권역 내 1인 가구 특성을 잘 파악하여 특색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봐도 좋겠다고 제안하다.

7. 폐회

최복수 위원장이 12:30에 2021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의 폐회를 선포하다.